

#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이 지옥을 물려주지 말자”

## 악인들 소탕하는 강력계형사 되겠다

임재민(24세. 호남대학교 경찰학과 1학년)



-장래희망은?  
강력계 형사가 꿈이다. 군 전역 후 2년 정도 순경 시험에 도전 하다가 체계적공부를 위해 대학 경찰학과에 입학했다.

-왜 경찰이 되려고 하나?  
현직 강력계 형사과정으로 재직 중이신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자주 경찰서에 갔었는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앞에 두고도 당당하게 취조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며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

-서울보다 열악한 광주의 '경찰 준비생' 생활은 어떤가?  
주변 친구들과의 연락까지 끊고, 총장도 학원가 중 제1 유명 경찰공무원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했다. 하지만 학원의 하루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다. 시험을 위한 암기와 공부, 그리고 식사, 다시 공부와 암기의 반복은 매일매일 이어졌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화장실 갈 때도 단어장, 밤 먹음 때도 단어장을 들고 공부할 정도로 전정터를 방불케 했다. 김밥이나 죽먹, 도시락을 가져와서 공부하면서 먹는 것이 일상이고, 3천원 남짓한 식권을 사서 학원 옆의 뷔페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여유로운 사치일 정도였다. 나도 비싼 학원비와 책 값 등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로 생활했다.

-공무원 시험에 전부를 바친 청년들의 생활은 어떤가?  
서른다섯 살 준비생까지 봤다. 요즘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많다.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벽에 잠깐 자고 아침부터 벌건 눈으로 학원에서 공부하는 30대 준비생을 봤는데, 장래 내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이 아왔다. <유재현 학생기자>

## 공무원 시험 집어치우고 스튜어디스 도전

김유진(24세. 조선대 국문과 4년 휴학생)



-대학 휴학후 달라진 일상은?  
대학교를 입학하고 2학년 까지는 별로 갈피를 못잡고 시간낭비를 했던 것 같다. 기대하던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도 아니었고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다. 하지만 대외활동은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광주 U대회 홍보대사 활동도 했었고 소셜커머스 모델 활동도 했다. 이상하게 학교생활보다는 그런 일들을 흥미있게 잘 해낸 것 같다. 그래서 졸업 후 취업때까지 시간여유가 필요해 휴학을 했다. 미국 여행을 다녀온 것이 가장 큰 경험이다. 여행도 다니고 견문을 넓히고 있다.

-재학중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은 없나?  
잡 많이 했다. 온라인 쇼핑몰 피팅모델도 했었고, 뷰티샵에서도 일 했으며, 사진모델, 영화촬영 등 많은 일들을 했다. 단순한 용돈벌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취업준비 비용에 모두 투자 하고 있다.

-어떤 분야 취업을 준비 중인가?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맘이 바뀌어서 스튜어디스 준비중에 있어서 현재 학원에서 배우고 있다.

-목표를 바꾼 동기는?  
미국 여행을 나가게 되었다. 시험 준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던 터인데 이번 여행은 좀 특별했다. 미국이란 큰 나라에서 나 자신이 너무 작아보였다. 공무원이 된다면 조그만 나라, 조그만 도시에서 한 곳에 박혀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여행이 너무 좋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것은 스튜어디스였다. 결국 내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겠구나 싶어서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전요셉 학생기자>

## 부모님 가게 대신 꿈 찾아 공군부사관 합격

김정훈(23세. 현재 부모님 점포 관리)



-목표한 시험에 합격했다고 들었다. 소감은?  
날아갈 것 같다. 아직 면접과 신체검사가 남아있지만 시험합격으로 9부능선은 넘었다. 긴장하며 면접준비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항공정비지식을 국방현장에서 활용하며 멋진 공군이 되고 싶다.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경우인데, 어떤 공부를 했다.  
서울에서 지취를 하며 한국 항공직업전문학교 항공정비공학과를 졸업했다. 가게를 만지는 일이 좋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자격증도 여러개 따다. 그러나 목표한 공군 부사관 시험준비를 하면서 몇차례 낙방해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순천으로 내려와 작은 가게를 창업해 돈을 벌면서 공부를 계속했다.

-서울이 더 취직할 기회가 많았을 텐데 순천으로 내려온 이유는?  
부모님 순천에 가게를 내고 관리해 달라고 해서서 내려와 일을 배웠다. 지금은 매장관리, 직원관리하고 월급을 주는 가게 사장님으로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러나 나의 꿈은 공군이였다.

-부사관 시험공부에도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가게운영까지 할 수 있었다. 가게운영이 아주 잘된다는데 그만두기 어렵지는 않은가?  
가게에서 틈틈이 공부했다. 시간을 쪼개 썼다. 가게를 운영하는 건 귀찮고 할까, 흥미를 못느끼고 기계같이 일하는 느낌이 든다. 말 그대로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아픈데도 집에 가서 부사관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국사, 국어, 영어등을 공부했을 때가 오히려 머리가 식혀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리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해도 흥미가 안생기면 재미가 없잖은가. <이현미 학생기자>

## 취업 절벽 높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구준모(27세. 순천대학교 회계학과졸. 취업준비생)



-거주지가 여수인데 여수 행편은 어떤가.  
여수시는 그나마 기업들 수가 많아 청년 취업률이 괜찮은 편이지만 그것또한 합격의 문이 굉장히 높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취업의 문이 높은 건 똑같다.

-청년 지원정책들의 도움을 받은 적 있는가.  
실은 대학교 다닐 때 휴학을 하고 광주에서 공시 준비를 한적이 있다. 그기간 중에 정부에서는 수많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기고용 위주의 일자리 박람회 여는게 전부였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는 관심이 없어서 신경쓰지 않았다.

-취업은 어느쪽으로 준비 중인가.  
대학졸업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차례 실패했지만 계속 금융분야 대기업과 공기업에 도전해 볼 생각이다. 나중에는 금융 컨설턴트가 되는게 꿈이다. 하루 3시간 이상씩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

-부모님께 용돈 타는게 한계가 있을 텐데.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주로 식당이나 술집에서 서빙을 했다. 그리고 인력사무소에도 많이 나갔다. 건축 토목 공사현장에 나가 기초적인 육체노동을 한다. 이른바 '노가다'다. 하루 8시간씩 일하고 많이 받을땐 월 150만원 정도 받았다.

-앞으로의 꿈은?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이 취업지옥을 물려주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나는 준비되어있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도 잘해 낼 자신이 있다. 그러나 그럴 기회조차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인재를 알아보는 좋은 회사가 한군데는 꼭 있을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취업 사이트를 뒤질 뿐이다. <박승곤 학생기자>

## 스펙쌓기에 보낸 시간·노력이 너무 아깝다

이대원(30세.건설회사 관리직)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가장 힘든 것은?  
스펙 경쟁에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공인영어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학원도 다녀보고 관련 문제집들도 많이 풀며 공부를 했었지만 취업 후 실무에서는 정작 쓰이지 않고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투자한 시간과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극심한 취업난을 돌파했다. 지나고 보니 우리나라 취업난에 대해 어떤 느낌인가.  
지독하다. 주거비, 통신비, 식비등 치솟는 물가속에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청춘을 저주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학사모를 쓰기까지 다들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그에 타당치 못한 열정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실정이라 처참하다. 나라에서 인위적으로라도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게 아닌가.

-앞으로의 꿈은?  
나 자신도 취업난에 허덕이다가 원해 왔던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다보니 저는 현 직장에 만족하며 지낸다. 그러나 결혼과 육아등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스트레스는 항상 가지고 있다.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더 나은 근무조건을 위해 이직을 생각하고 산다.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TV프로그램, 초정강의 등을 보면 '꿈을 쫓아라'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개소리다. 꿈을 쫓으면서 금전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허황한 말 듣지 말고 스킨 한두살부터는 정병대 가 무슨 일을 하고 사는데 재미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자녀께나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나씩 해가는 수 밖에 없다. <최경택 학생기자>

## 단순 돈벌이 아닌 좋아하는 일 갖는게 꿈

박연주(25세. 변호사 사무실 사무직)



-현재 하는 일을 소개해 달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복사와 문서작성, 이메일 관리 등이다. 취업 6개월째다.

-대학전공과 연관성은?  
불문학을 전공했다. 법학에 대해서는 아무 전공지식이 없다. 취업 준비 도중 아는 분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다만 법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업무를 맡고 있을 뿐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향후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는데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하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현재 일에 소홀히 하는건 절대 아니다. 한치도 실수가 없도록 매일 긴장하며 일하고 있다.

-근무환경은 어떤가.  
복지는 매우 좋다. 직장내 대인관계는 원만하지만 나이가차이 15살 이상 나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생활인자라 별다른 예피소드나 트러블은 없다. 항상 조언을 들으며 잘 못하면 혼나는 정도이다.

-목표로 하는 직업이 따로 있는가.  
여행가이드다. 직업 속에서 세계각국을 여행하고 싶다. 우선 내 전공은 법과 관련된 것도 아닐 뿐더러,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일을 보는 것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고 여행사 가이드를 목표로 삼아 현재 일을 하면서 조금씩 준비 중이다.

## 비정규직 젊은 애아빠 “창업 꿈 이루겠다”

염종열(24세. 회 뷔페 계약직)



-요즘 젊은 세대로선 일찍 결혼한 편이다.  
부끄럽지만 대학 중퇴이고, 일찍 결혼해서 벌써 13개월 된 아기 있다. 광주의 '대여' 회 뷔페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가장이면 돈 쓸 일이 많을 것 같다.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지출이 꽤 크다. 아무래도 육아비에 가장 돈이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으로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이랑 노는데 쓰기도 하고..

-원래 꿈은 어떤거였나.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체육교사가 되게 꿈이었다. 고등학교 때 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이랑 같이 체대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대학에 실패하고 스무 살이 넘고 나서는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꿈이 됐다. 마음먹은 미래 직업은, 창업을 하고 싶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긴 하나 나도 청년실업 당사자다.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자리는 대부분 다 계약직이고 정 직인 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잘 사는 사람들도 계속 잘 사는 게 좀 부당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인생설계는?  
나만의 가게를 여는 게 목표다.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해왔고 처음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노하우,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의 방침은, 첫 번째로 인건비는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인건비를 아끼는 사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직원들도 빨리 의욕을 잃고 더 지쳐버리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목표를 높게 잡는다. 제 한계를 넘어선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전형훈 학생기자>

## 취업해도 경쟁 또 경쟁...문화 즐길 여유 없어

김세연(26세. 서울 광고건설회사 근무)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생각하나?  
취업난이 모든 청년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형상이다. 나만해도 취업을 위해 지원 안해본 회사가 없을 정도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인생의 3분의 2를 취업을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젊은 시간동안 문화

적 삶도 즐길 여유가 사라졌다. 삶의 질? 사치스런 얘기다.

-취업한 뒤에 여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전반에, 취업전쟁에 빠져 피나게 경쟁하고 취업하고 나서도 경쟁 경쟁 경쟁이다. 취업은 경쟁의 작은 난관일 뿐이었다. 왜 젊을 때 좀 즐길 걸 위해 이렇게 달려왔나 싶기도 하고 요즘 들어 여행을 떠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비교적 일찍 결혼한 편이다. 충고를 해주나?  
젊은 나이에 급하게 결혼을 하고 보니 신혼집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아파트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굉장히 싼 임대료로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급하게 목돈을 들이지 않아도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

-광주 청년들의 문화생활의 질은 어떤지 같나?  
솔직히 말하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 경주나 전주처럼 관광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서울은 인구과밀이지만 많은 문화생활공간이 있다. 공연 연극 길거리 버스킹 등등. 젊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다가가 갈 만한 프로그램이나 힐링 장소가 굉장히 많다. 항상 드는 생각이 서울에서 사귀 친구들이 내려온다면 광주에서 데려 갈 곳이 없다. 많은 문화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오준 학생기자>

## 축구는 내 인생 “정상급 피지컬 코치 되겠다”

최준혁(27세. 축구학과 대학원생)



-호남대학교 축구학과 2009학번으로 입학해 2016년 2월 졸업을 하고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최준혁씨를 만났다. 아침부터 밤까지 축구학과 연구실에 불을 밝히는 최씨는 올해 초 영국 축구 연수를 다녀 올 정도로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평소 매모광이라고 알려졌다. 모두 축구에 관한 메모인가.  
초등학교 축구선수를 할 때부터 습관이 됐다. 어릴 때부터 일기와 일지를 쓰곤 했는데 나이를 먹다보니까 그냥 수첩을 항상 갖고 있어 아이디어나 또 기억할 게 있다면 항상 쓴다. 영국에 갔을때는 특히 한국과 비교해 너무나도 적을 게 많았다.

-요즘은 일과는?  
논문작성을 위해 교수님과 대화한다. 어떠한 훈련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축구학과는 어떻게 들어왔다.  
처음에는 운동선수로 들어왔다. 그러나 현실과의 괴리, 비전, 부상 등을 고민하고 겪으며 운동을 그만뒀다. 우연히 친구가 추천해 준 축구클럽에서 아마추어선수들을 지도 했는데 희열이 정말 끝내졌다. 그래서 축구 지도자에 갖춰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다.

-머릿속에 축구밖에 없었나.  
친한 친구들들도 축구계에서 일을 하고, 나도 축구만 생각하고 지내고 있다. 목표가 있기에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축구가 참 좋다.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말 자신이 목표한 것을 향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다 보면 최종목표와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본다. 청춘들이 정말 힘냈으면 좋겠다. 파이팅! <구동환 학생기자>

## 소방공무원 공부 접고 좋아하는 일 할 것

장효지(26.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졸)



-소방공무원 지망생으로 알고 있다. 근황은?  
대학 졸업후 지금까지 광주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다. 소방 공무원을 준비해왔지만 실패했다. 우연한 계기로 상담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지인소개로 미술상담, 도형상담 등 자격증을 소지하면서 상담센터 등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목표를 바꾸는데 갈등은 없었나.  
소방공무원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2년 공부를 해오면서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한 전공이었고 계속 공부를 해보니 나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활동적이면서 사람을 대하는 일인 것을 알게 되었고 상담분야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 맞아 계속 준비하게 되었다.

-광주 자취생활은 불편하지 않은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자주 고향에 내려가지 못해 가족의 얼굴이 보고 싶다. 또 집 밥이 그리다. 식사를 보통 사먹거나 자취방에서 간단히 해결하다 보니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이 그리다. 그리고 예전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추억을 쌓을 시간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 그 또한 아쉽다.

-생활비 충당은 어떻게 하는가?  
보통 식당 서빙이나 주방보조를 했었고 현재는 기업형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한 달 급여는 평균 50만 원 정도이다. 통신비, 월세, 교통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별로 없다. 외모도 가꾸고 여가도 즐기고 싶지만 그럴 여유조차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저축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김성룡 학생기자>

## 영업실적 채우기 진땀나도 직업 있어 행복

김수복(27세. 타이어나라 광산점 근무)



-직장생활 몇 년째인가. 어려운 점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2010년부터 일했으니 올해 6년이다. 어떤 직장에서도 일인당 채워야 할 실적 목표를 주는데, 그 실적 달성의 부담이 가장 힘들다. 월별 목표, 일년중 목표가 있는데 게을리 하다보면 할당을 채우기 어려워진다.

항상 영업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잠재적 고객으로 생각하며 친절과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 힘들지만 세상에 이정도 힘들지 않은 직업이 어디 있겠는가. 남 속이는 정지인 말고는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생활은 어떤가.  
머지않아 태어날 첫아기를 잘 키워서 신랑이랑 부족함 없이 그저 평범하게 가정생활 하는 것이 나의 소박한 꿈이다. 결혼 전에는 허황한 목표도 많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기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취업난으로 스트레스가 많다고들 하지만 대기업만 바라보지 않고, 조금 더 낮은 눈으로 바라본다면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나는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내 직장에 만족한다. 대학졸업자들에 걸맞는 직업이 부족한 현실이니까 눈높이를 낮추고 어떤 일인지 도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길 바란다.

-눈높이를 낮춰도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들이 많다.  
나라경제가 잘 돌아가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고교부터 직업교육을 활성화 해서 청소년들이 무조건 대학입학을 고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고졸 청년들도 대졸 청년들도 모두 취업의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 <조영훈 학생기자>

## 임신·육아 아지는 힘든 직장문화 고쳐져야

박미애(35세. 직장 퇴사, 창업준비)

-다녔던 직장을 그만 두셨다고 들었다. 이유가 뭐였나.  
임신 때문이다. 직장을 3년 다녔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임박이 느껴졌다. “임신했는데 계속 나와도 괜찮겠느냐”는 말을 자주 들었다. 처음에는 걱정해 주는 말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간부들이 나를 만나면 살짝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짓는 날이 많아졌다. 처음엔 버티다가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아이한테도 안 좋겠구나 싶어서 퇴사를 결정했다. 남편은 직장이 아깝다고는 하지만 차라리 출가분하며 퇴사에 찬성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가요?  
지금 없다. 일단 아이가 좀 자라야 그걸 결정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 곤란하다. 만약 유치원에서 다치더라도 하면 회사에 있어서 뛰어가봐야 하는데 그게 부담이다. 걱정되서 일도 못할 것 같다.

-아직 출산여성에 대한 직장문화가 그정도로 열악한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은 몰라도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아직 기존여성에게는 힘든 곳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걸로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건가?  
고민하다가 결국 레드오션이지만 카페를 차릴려고 한다. 나 자신이 커피를 좋아하고, 무엇보다 자영업이니까 아이가 다치면 알바생에게 맡기고 집에 쉽게 갈수 있지 않은가.

-창업도 쉽지는 않을 텐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있나.  
주변에 카페들이 많아보니까 힘들지 않겠느냐는 등 걱정하는 말들이 많다. 그래서 더욱 오기가 생겼다. 성공해보자 하는 각오가 있다. 주변에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카페가 수두룩하지만 다들 프랜차이즈 점이나 그저 그런 카페들이다. 입소문이 날 정도로 특별한 맛과 분위기를 가진 카페를 차릴 생각이야. <유승준 학생기자>